

부산지역 3·1운동 전개 양상과 특징*

홍 순 권**

| 목 차 |

- I. 머리말
- II. 3·1운동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
- III. 부산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주도층
- IV. 부산지역 3·1운동의 여파
- V. 맺음말

| 국문초록 |

3·1운동은 총체적으로 보면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이면서도 동시에 식민지적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복잡하게 작동한 사회적 변혁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이 특히 두드러진 것이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3월 11일 첫 만세시위가 부산부 좌천동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3월 13일 동래 시장에서 두 번째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산에서의 초기 만세시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에서의 만세시위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일어났다. 서울 만세 시위를 부산에 전달한 이들은 주로 부산 출신의 재경 인사와 부산 거주

* 부산시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2018. 10.30.) 발표원고를 수정한 것임

**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 / skhong@dau.ac.kr

자로 미리 상경하여 서울 만세 시위에 참여한 자들이었다.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3·1 독립만세시위가 발생한지 열흘 만에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있었던 것은 두 지역이 근대적 교통수단인 경부선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산지역의 시위가 서울의 종교 조직 및 학생 세력과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부산지역의 만세시위는 처음에는 부산부 조선인 거주지역에서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동래군 군청소재지인 동래면으로, 그리고 점차 인근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일제의 무차별적 진압에 대응해 시위 방식도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띠어 갔다. 또 시가지에서의 시위운동은 초기에는 주로 교사와 학생층이 주도하였으나 시위가 반복되면서 노동자들도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반면, 구포와 기장 등 농촌 지역에서의 시위는 시장의 상인층과 농민층이 주된 참가자였다. 특히, 구포에서는 곡물상이 시위를 계획하고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반드시 부산지역만의 특징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시위 준비 과정에서 면사무소의 서기가 시위 계획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시위 때 필요한 전단 제작을 위해서는 등사판이 필요했던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관리에 대한 일제의 민족적 차별 정책이 그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만세 시위운동은 김해, 양산 등 인근 농촌지역에서의 만세 시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점차 경상남도 일대 전 지역으로 만세 시위가 확산되는 데 작·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와 불교세력이 시위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경상남도 내 다른 군에 서처럼 유림들의 역할은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어 : 3·1운동, 일신여학교, 동래고보, 범어사, 구포시장

I . 머리말

1919년 일어난 3·1운동은 일제강점하 민족해방운동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그 해 4월 민주공화

제를 채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서 탄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만큼 일제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이른바 일제의 ‘문화정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민족주의운동세력이 분화하고, 민족운동의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3·1운동은 국내외 민족해방운동의 지형을 또한 크게 바꿔 놓았다.

그동안 3·1운동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3·1운동의 원인이나 배경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그 구체적인 전개 양상과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 그러나 국내외 각지에서 일어난 3·1운동에 관한 지역 연구는 반드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서 심층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의 지역사례 연구는 도별 단위로 묶어서 연구되어 온 경향이 많고, 시·군 단위의 연구는 시위 사건의 전말을 원인 분석 없이 시간 순으로 간략히 복원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 그나마 독자적인 연구보다는 도별 또는 그 이상 지역 단위 연구의 일부로서 다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1919년 부산지역 3·1운동에 관한 연구도 다른 지역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기술한 글은 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1966일 것이다. 이 글은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3·1만세 시위운동을 각 읍·면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1)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다만, 최근 3·1운동의 원인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통설적 견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글이 있어서 주목을 끈다. 즉, 도면희, 「3·1운동론에 관한 성찰과 제언」, 『역사와 현실』 109, 2018에서 필자는 그동안 3·1운동의 원인 연구가 민족자결주의와 러시아 10월 혁명, 일본의 무단정치와 경제적 수탈 등 주로 거대 담론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1운동의 원인에 대한 시론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3·1운동은 민족적 차별, 과도하고 조급한 근대적 제도화, 과도한 재정 부담과 수탈 및 부역 동원, 헌병경찰의 횡포, 그리고 그 위에서 부농 이상 지주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부상 욕구가 국제정세와 결합함으로써 대중적 분노가 분출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중에는 동래 의거, 기장읍 의거, 부산부 의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기술한 내용은 모두 합해서 6쪽 정도의 분량이지만,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다. 또 인용 자료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글의 내용으로 보아 재판기록이나 수형인 명부를 전거로 하여 기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산지역 3·1운동 참가자의 재판기록이나 수형인 명부 등에 실린 내용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비교 분석한 글은 아니다.

이밖에 부산지역 삼일운동에 관한 기록으로 이용락, 『삼일운동실록』, 1969이 있는데, 3·1운동의 전개 과정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내용은 변지섭의 글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 일부 3·1운동 참여자 혹은 목격자의 증언을 첨부하였다. 이후 발행된 부산지역 3·1운동에 관한 기록은 위의 두 문헌을 참고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²⁾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서 수집 가능한 3·1운동 참가자의 재판기록과 수형인 명부 등 1차 자료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을 통해서 부산지역 3·1운동의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부산지역의 범위는 3·1운동 발생 당시 행정구역상 부산부와 동래군에 소속된 지역으로 대부분 현재 부산광역시에 해당되는 지역(강서구는 제외)이다. 부산지역 3·1운동의 전체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3·1만세 시위가 지닌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2) 부산지역 3·1운동을 별도 주제로 다룬 기존 연구로는 김의환, 「부산지방의 항일독립 운동사고-3·1운동을 중심으로-」, 『한일연구』 1, 1972. 채상식, 「한말: 일제시기 범어사의 사회운동」, 『한국문화연구』 4, 1991. 강대민, 「부산지역에서의 3·1운동과 학생」, 『부산지역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 2010 등이 있다.

II. 3·1운동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

1919년 3월 1일 12시를 기해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독립만세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확산되어 갔다. 지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서울과 평양으로부터 점차 인근 지역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 대도시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로 그리고 점차 농촌지역과 산간지역으로 파고드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시기적으로는 3월 중순에 이르면 서울 등지에서 시작된 3·1운동의 여파는 지방의 중소도시는 물론 점차 전국 각지 농촌지역에까지 미쳤으며, 3월 말 4월 초에 이르러서는 산간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 거의 모든 곳에서 시위가 발생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시위 참여층은 발생 초기에는 도시의 학생, 상공인, 노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농촌의 농민과 일부 지주층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시위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일제의 군경측과 시위 참여자들간의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시위 방식도 점차 초기의 비폭력적 형태에서 폭력적 투쟁 방식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3·1운동의 전개 양상은 이미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잘 알려진 것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구서와 일제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도)별 상황을 시기적으로 정리해 보면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각도별 시기별 시위 발생 상황

단위: 건

	3.1~3.10	3.11~3.20	3.21~3.31	4.1~4.10	4.11~4.20	4.21~4.20	계
서울	10	2	52			1	65
경기	8	12	142	55	4		221
충북		1	10	33	5		49
충남	3	13	14	45	1		76
강원	1	3	8	49	8	1	70
경북	3	19	17	16	4	1	60
경남	(1)*	23	36	43	6	6	114(115)*
전북	3	9	12	6	2		32
전남	1	9	7	14	14	4	49
황해	23	23	22	52	10	1	131
평남	70	2	6	6	1		84
평북	41	12	21	40	1		115
함남	18	46	5	2			71
함북	2	19	8	11	4	7	51
계	183	193	360	372	60	21	1188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2, 1968 『각도운동일람』에 의거함. 단, (1)*은 이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필자가 추가한 것임.³⁾

3) <표1>은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민족해방운동 연구』(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청년사, 1989에 실린 이윤상·이지원·정연태의 논문,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246쪽에서도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표1>의 인용 근거인 『한국독립운동사』2, 1968의 「각도운동일람표」는 金正明編, 『獨立運動史 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에 수록된 일본 정보기관의 각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들 정보 보고서는 주로 각 도별·시기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작성 기관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시위, 즉 ‘소요’에 대한 판단 기준 또한 일정하지 않다. 예컨대, 경상남도의 ‘소요’와 관련하여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부산부 소요 발생 회수를 5회로 표시한 『경상남도일람표』(『한국독립운동사』2, 323쪽)에는 3월 3일 발생한 선언서 배포를 시위 행위로 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다른 각도 보고서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 요컨대, 전국적인 3·1운동 전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독립운동사』2에 제시된 각종 「각도운동일람표」의 부분적인 수정 작업이 요구되나, 이 글에서는 일단 부산지역만을 재검토하여 보완하였다.

<표2> 시위 발생 및 사상자수 일람표

단위: 명

도명	개소수	회수	관헌측		보통민		시위가담자 ⁴⁾		기타 피해
			사	상	사	상	사	상	
경기	143	225	2	22		3	72	240	55
충북	31	37		20			28	50	18
충남	56	65		8		4	39	121	11
강원	32	41		7		4	23	43	9
경북	27	30		13		3	25	69	12
경남	68	101		18	1	3	50	139	12
전북	11	12					10	17	3
전남	10	14						4	
황해	81	104		30		3	36	79	17
평남	36	40	6	8		2	124	166	8
평북	59	94		18		2	107	349	10
함남	43	60		9		4	27	94	4
함북	21	24		5			12	41	
계	618	847	8	158	1	28	553	1,409	159

자료: 大正8년 6月 20日 騷密第4403號 『騷擾個所及死傷者數の件』(삼일운동편, 국학자료원, 1967, 474쪽)⁵⁾

이제 위 <표1>과 <표2>를 바탕으로 3·1운동 발생 과정의 지역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3·1운동 최초의 발생 시기를 도별로 보면,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

4) 원 자료에는 ‘暴民’으로 표시되어 있다.

5) 朴慶植, 『朝鮮三·一獨立運動』, 平凡社, 1976, 173쪽에는 경남 3·1운동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2>에 표시된 수치와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본도(경상남도)에서는 관헌자료에 의하면 일본군경과의 충돌 39개소(일본군의 출동지역 28개소, 발포지역 36개소)에서 조선인 사망자 81명, 부상자 233명, 피검거자 약 700명이며, 군중에 의한 일본관공서 파괴 개소는 경찰관서 15, 헌병분견소 7, 군청·면사무소 7, 우편소 6, 기타 8”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 특히 한반도 남부와 북부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월 10일 이전 만세시위 운동은 주로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북부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던 기독교와 천도교의 교단 조직의 역할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⁶⁾ 서울이 최초의 3·1운동 발생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경기도를 비롯하여 남부 지방은 3월 하순 및 4월 초순에 이르러서야 만세시위가 크게 증가하여 절정에 달하고 있어 북부 지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부지방 중 경남에서 일어난 최초의 만세 시위는 3월 9일 함안 칠북에서 발생한 연개장터 만세 시위이다. 그리고 이틀 후인 3월 11일 부산에서 처음 시위가 일어났다. 물론 연개장터 시위가 이정은의 논문에 의해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3월 11일의 부산 시위가 경남 최초의 독립만세시위로 인식되어 왔었다.⁷⁾ 굳이 이러한 사실을 제쳐놓고서라도 남부 지방의 타도와 비교해 본다면, 경남은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 충북, 전라남북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만세시위가 빨리 발생한 편이다. 특히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부산 등지에서 조기에 시위가 발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3·1운동 소식의 전파 과정에 있어서 지리적 인접성 못지않게 근대적 교통 수단

6) 이운상, 「평안도 지방의 3·1운동」(『3·1민족해방운동 연구』(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1989, 청년사, 所收) 참조.

7) 이정은, 「경남 함안군 3·1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2006 참조. 또 한국문화원협회 경상남도지회편,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2007, 137~139쪽에 의하면, 1919년 3월 9일의 연개장터 시위는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인 李甲成의 지도로 서울로 올라가 고종 황제의 인산과 3·1운동을 참관하고 귀향한 김세민 장로 등이 세말 예배당에서 지역 유지들과 계획을 세운 뒤 3월 9일 정오 연개장터에서 수천명의 군중과 만세시위를 벌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1976년 8월 15일자로 이 의거의 내용을 기록한 기념비가 연개장터에 세워져 있다. 다만, 조선총독부가 3·1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국 시위 사건을 망라해 일별로 기록한 「三月一日より四月三十日に至る朝鮮騒擾事件經過概覽表報告の件」(김정명, 앞의 책, 703~754쪽)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군경의 출동 없이 평화적 시위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인 경부선과 같은 철도의 영향이 더 컸음을 추론케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3·1 만세시위가 발생했던 북부지방의 발생빈도가 남부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그러나 각 도별 최초의 발생시기와 발생 빈도는 반드시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경기도는 전 기간 발생빈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 경남 또한 늦게 시작했지만 삼남지방의 다른 지역에 비해 발생 빈도는 높은 편이다. 이는 경기도, 황해도 다음으로 평안북도와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경남에서 만세시위가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⁸⁾

여기서 우선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 3·1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근대적 교육기관인 학교의 설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제가 3·1운동의 원인으로 분석한 이른바 ‘소요와 학교’의 상관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도별 학교 수와 3·1운동의 빈도수는 매우 밀접하다. 이 점에서 학교의 존재 여부는 부산지역 3·1운동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8) 경남지방의 3·1운동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馬淵貞利, 『第一次大戦期朝鮮農民の特徴と三一運動-農民の商品生産と植民地地主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2, 1975; 정연태, 『경남 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 연구』(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1989, 청년사;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편,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2007 등이 있다. 馬淵貞利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수출을 통한 쌀값 급등에 주목하여 경남 3·1운동의 원인이 일제의 강압적 농정에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쟁 기간 동안 호황을 타고 성장한 농민들의 발전적 지향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 원인 분석이 호남 등 왜 다른 지역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다. 정연태는 현상적인 경남 3·1운동의 투쟁 양상에 있어서의 특징을 지적하였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론 이외 특별한 지적을 하고 있지 않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편,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에서는 경남지역 3·1운동을 각 군별로 서술해 놓고 있으나, 경남지역 3·1운동의 전체적 지역적 특성을 논하지는 않았다.

<표3> 도별 참가학교수 및 참가학생수

도별	관공립학교		사립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경기	18	1,527	18	1,141	36	2,668
충북	1	13	-	-	1	13
충남	4	10	3	300	7	310
전북	6	352	3	150	9	502
전남	5	152	2	150	7	302
경북	7	332	4	259	11	591
경남	15	665	11	495	26	1,160
황해	3	210	6	350	9	560
평남	7	866	47	3,086	54	3,952
평북	6	605	10	740	16	1,345
강원	1	70	-	-	1	70
함남	8	347	23	437	31	784
함북	5	116	6	130	11	246
계	85	5,365	135	7,621	220	12,986

자료: 『騷擾と學校』; 秘 大正10年1月, 朝鮮總督府學務局(김정명편, 앞의 책, 857쪽)에 의거해서 작성함.

이밖에 이 글에서는 1919년 3·1운동을 이전 시기의 민족운동과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3·1운동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충청, 강원, 호남과 경북 지역은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 이전 의병항쟁이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제의 의병 탄압으로 인해 3·1운동을 지도할 지역 엘리트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것은 아닐까? 특히 호남지역은 1909년 이른바 ‘남한 대토벌’로 의병세력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의 전통적 지배구조 자체가 붕괴되어 민족적 저항운동을 이끌어 나갈 구심적 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경상남도는 서부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삼남의 타 지방과 비교해서 의병투쟁

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이 주목된다.⁹⁾

셋째, 투쟁양상과 관련해서 볼 때 무력 충돌, 즉 폭력투쟁의 빈도가 평북, 경기, 평남 다음 경남에서 많이 일어났다. 이를 반영하듯이 일제가 조사한 3·1운동 기간 중 전국 도별 관공서 피해상황을 보면, 경기도가 30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경남 18개소, 황해 18개소의 순이다.¹⁰⁾ 경남에서의 3·1운동은 시위 횟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투쟁 방식도 그만큼 격렬하였다.¹¹⁾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일제 식민통치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장차 해명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글에서는 부산이 지닌 식민통치상의 지역적 또는 지정학적 특성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이점은 다음 절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
- 9) 한말 경남지역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홍순권, 「한말 경남 서부지역의 의병활동」, 『지역사회연구』 5, 1997 및 「한말 경남지역 의병운동과 일본군의 의병 학살」, 『군사연구』 131, 2011 등 참조. 한편으로 경남 3·1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생들이 운동을 조직하고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정연태, 앞 논문, 363쪽 참조) 이는 상대적으로 경남지역에서는 한말 의병운동의 지도층이었던 유림세력의 역량이 일부 보존되어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 10) 「朝鮮騷擾事件に基づく被害官公署報告の件 ; 大正8年5月12日」(김정명편, 앞의 책, 761쪽). 관공서에는 부·면사무소를 비롯하여 경찰관서, 보통학교, 소학교, 우편국청 기타를 포함하며, 조선 내 전체 피해관공서 수는 116개소이다.
- 11) 이 점은 정연태, 앞의 논문 등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 중 박경식, 『朝鮮三一獨立運動』의 지적이 특히 주목된다. 이 책 172~173쪽에선 경남의 3·1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본도(경상남도)의 운동은 남조선 6도중 가장 격렬했다.....운동을 군별로 보면, 함천이 가장 격렬했고, 함안, 진주, 창원 하동 각 군이 그 다음이다. 또 1개소에서 수회 내지 수십 회 연속적으로 봉기했던 곳이 많고, 특히 10회 이상 봉기한 지역으로는 하동, 함천, 창원, 진주, 김해 등이 있다. 본도에서는 학생, 그리스도교도, 농민, 노동자가 중심이 된 지역이 많았고, 천도교 중심의 운동은 그 세력이 작아서 타 지역에 비해 적었다. 한편 해인사, 표충사 등의 불교세력도 많이 동원되고 있다. 또 군 면 등에 있어서 조선인 관리들이 수는 적지만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박경식이 지적한 조선인 관리는 아마도 면서기 등을 일컫는 것 같다.

Ⅲ. 부산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주도층

1. 부산지역 3·1운동의 전개 과정

1) 부산과 경남의 3·1 만세시위의 상호 연관성

부산은 한국 최초의 개항장 도시이다. 1919년 당시 부산부는 이러한 개항장을 도시 기반으로 하여 이미 인구 7만 명에 이르는 ‘근대화된 도시’로 성장해 있었다.¹²⁾ 1876년 부산의 개항과 동시에 부산 개항장은 일본전관거류지로 설정되어 이후 일본인에 의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식민지적 도시 행정구획인 부제가 실시되는 1914년 시점 부산부의 일본인 인구는 조선인 인구를 압도하여 전체 도시 인구의 51%를 차지할 정도였다.¹³⁾ 이러한 상황은 이후 조선인의 인구 증가로 역전되었지만, 1914년 당시 부산부는 전국 도시 중 일본인 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인구가 조선인 인구보다 많은 유일한 도시였다. 그것은 곧 부산이 조선 내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가장 뚜렷한 도시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부산부는 경상남도 내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른 도시이기도 하였다. 1919년 당시 이미 도청 소재지인 진주의 인구를 크게 앞질러 있었다. 게다가 조선 내 제일의 무역항이자 인구로서는 경성 다음의 대도시로서 경제력 또한 경남 도내에서 으뜸이었고, 행정은 물론 교육 시설 또한 도내에서 가장 집중되어 있었다.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세력 또한 컸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다. 경남 도청의 부산 이전은 3·1운동 발생 6년 후

12) 1919년 부산의 총인구는 74,138명이고, 이중 조선인은 43,424명, 일본인은 30,499명을 차지하고 있다.[朝鮮總督府刊,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9년) 참조].

13) 1914년 당시 부산부 인구는 총 55,094명, 이 중 조선인 인구는 26,653명, 일본인 인구는 28,254명이다.[朝鮮總督府刊,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4년), 72~73쪽 참조].

인 1925년에 실현되었다.¹⁴⁾ 이러한 사실은 1919년 당시 부산이 이미 지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기도와 평안남도에 서 독립만세 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이유는 두 지역이 대도시인 서울과 평양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1> 등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경기도에서 일어난 시위 중 상당 부분은 서울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평양과 인접한 평안남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시 인구 규모가 서울 다음이었던 부산을 끼고 있는 경남 또한 경기도나 평안남북도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도시로서 부산의 지정학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제 침략의 관문 역할을 했던 부산항이 국제무역항인 동시에 경부선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을 철도로 연결하는 근대적 교통망인 경부선은 역설적으로 3·1운동의 지역적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 일제의 정보 보고를 보더라도, 3월 3일 경 이미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는 시위 소식과 함께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있었다.¹⁵⁾ 경남 함안에서는 연개장터 만세시위 주모자인 김세민이 고종의 인산과 3·1 만세시위를 직접 참관하고 3월 5일경 귀경하여 지역 유지들과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반면에, 식민지 행정기구 및 군사시설의 집중적 배치는 3·1운동을 제

14) 경상남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된 당대 논의에 대해서는 홍순권, 「부산근대사와 부민동 임시수도거리의 변천」(동아대학교석당미술관 편,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 소收) 참조.

15) 「朝鮮各地의獨立運動に關する件; 大正8年3月4日 高第5725號」(金正明編, 『獨立運動史』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321쪽)에 의하면, 3월 3일 부산 마산에서 기독교도 중 불온 선언서를 배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취조중이라 하였다. 마산 또한 삼마선의 종착역으로 경부선과 거의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 운행되고 있었다. 삼마선 부설과 관련해서는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106~107쪽 참조.

16)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 편, 앞의 책, 2007, 138쪽.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식민지 시기 부산부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광복동과 남포동 일대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중심가였던 행정(幸町) 일대와 그 주변에 시청, 경찰서 등 관공서 뿐만 아니라 헌병대, 수비대 등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⁷⁾ 경부선 덕분에 부산에 시위 소식이 빨리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위 발생이 다소 늦어진 이유도 여기서 그 단서의 하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산부 내에서 시위가 주로 발생한 곳은 조선인 집주지역이면서도 도시 변두리인 좌천정(佐川町, 오늘의 좌천동)과 부산진 일대였다.¹⁸⁾

부산을 비롯하여 경남지역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한 국권 상실 이후 국권 회복과 민족 독립을 위해서 여러 비밀 독립운동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대동청년단과 조선국권회복단 등이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1909년 남형우를 단장으로 하여 조직된 대동청년단은 안희제, 윤세복 등 경남 출신 인사들이 다수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조선국권회복단은 독립군 지원을 목적으로 경북지방 혁신 유림들이 주축으로 설립되었으나, 활동 지역은 경남지역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었다.¹⁹⁾ 이 비밀결사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모금도 그들의 핵심적 활동 중 하나였다. 부산 경남지역에서 비밀결사 운동 내지 지하 항일독립투쟁은 3·1운동 만세 시위에도 영향

17) 『日鮮通交史 附釜山史 近代記』(釜山甲寅會 간행, 1916), 93~97쪽 등 참조.

18) 1920년대 전후 부산부 내 정별(町別) 민족별 인구 구성에 대해서는 양미숙, 『1920·1930년대 부산부와 도시빈민층 실태와 그 문제』(『일제강점하 부산의 지역개발과 도시문화』, 선인, 2009 所收) 참조.

19) 1910년대 비밀결사 운동이 부산을 비롯한 경남 및 부산지역 3·1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연구로는 장선화,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과 3·1운동의 전개』(홍순권 외, 『부산·울산·경남지역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 선인, 2011 所收) 참조. 또 경남지역 3·1운동에서 유림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로는 정연태,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 연구』(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1989, 청년사 所收를 참조할 수 있다.

을 미쳐 부산 경남지역의 3·1운동이 격렬했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4> 경남 각 군의 시기별 3·1운동 발생 양상

	기간	3.1~ 3.10	3.11~ 3.20	3.21~ 3.31	4.1~ 4.10	4.11~ 4.20	4.21~ 4.30	계	비고	
									폭력	비폭력
함안	3.9~4.3	(1)	4	1	1			7	3	4
부산	3.11~4.27		1		3		1	5	1	4
동래	3.13~4.27		3	1	4	1	1	10	8	2
창녕	3.13~3.31		4	3				7	5	2
밀양	3.13~4.10		4		4			8	2	6
의령	3.14~4.8		7		1			8	2	6
합천	3.18~4.27		5	7	4		1	17	10	7
진주	3.18~4.18		5	3	4	1		13	6	7
통영	3.18~4.6		1	1	3			5	1	4
하동	3.18~4.27		1	6	10	1	2	20	3	17
산청	3.19~4.3		3	2	4			9	2	7
거창	3.19~4.8		2	1	1			4	2	2
마산	3.20~4.25		1	2	1	3		7	1	6
고성	3.20~4.3		1	3	3			7	2	5
사천	3.20~4.25		1	4	3	4	1	13	1	12
창원	3.23~4.11			2	4	1	1	8	1	7
양산	3.27~4.6			3	2			5	3	2
함양	3.28~4.2			2	1			3	2	1
김해	3.30~4.16			2	6	3		11	4	7
울산	4.2~4.8				4			4	4	0
남해	4.3~4.6				3				2	1
계		1	43	44	65	11	10	174	66	108

자료 : 『3·1민족해방운동 연구』(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359쪽에 의거하여 작성함.
단, ()는 이정은, 앞의 논문을 참조하여 보완한 것임.

이제 경남지역 내 각 군별 3·1운동의 전개 양상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4>와 같다. 경남지역에서 3·1운동 기간 중 시위 발생 빈도가 높은 군은 하동 20회, 합천 17회 순으로 나타나지만, 동래를 포함한 부산지역 또한 15회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김해, 양산, 밀양 등지에서 매우 높은 시위 발생 빈도를 보여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합천과 더불어 동래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많았던 점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2) 부산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

부산지역 3·1운동의 전개 과정은 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삼협인쇄사, 1966) 과 이용락 편저, 『3·1운동실록』(사단법인 삼일동지회 발행, 1969)에서 그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밝혀져 있다. 여기에는 당시 3·1운동에 연루된 수형자들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3·1운동의 전개 상황을 사건별로 정리해 놓았다. 부산지역 3·1운동과 관련하여 『3·1운동실록』에 기술된 내용은 이후의 연구서에서도 별다른 수정 없이 자주 인용되어 왔다. 다만, 『3·1운동실록』에 기술 내용이 재판기록과 기타 관변자료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어서 내용상 보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선행 연구의 성과를 참조하면서 재판기록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삼일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특이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부산부 3·1 만세시위

부산 최초의 시위는 3월 11일 부산진 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주도로 발생하였다. 이들은 3월 2~3일 경 서울 학생대표단과 연결되었고, 이후 부산 각 학교와도 연락을 취하며 시위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이

미 언급했듯이 3월 3일에 이미 부산 일원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어 일찍부터 시위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신여학교에서는 주경애, 박시연 선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을 규합하였다. 그리하여 3월 11일 오전 9시경 고등과 학생 김응수, 송명진, 김반수 등 11명과 교사 주경애, 박시연이 좌천동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시위 전개함으로써 부산지역 3·1운동의 첫 신호탄을 올렸다.²⁰⁾ 이 날의 시위는 밤 11시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군경이 출동하여 시위 여학생 전원과 교사 2명을 연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도 부산 시내에서는 몇 차례 더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4월 3일 좌천동에서 약 100명의 시위대가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날 시위는 밀양 사람, 부산진 공립보통학교 교원인 홍재문이 동교 학생 배원수 등과 밀의하고 일으켰다.²¹⁾

② 4월 8일 이갑이, 전호봉 등이 모의하여 대중을 동원 좌천동에서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 날 인근 부산진에서도 50여명의 여학생(일신여학교 학생으로 추정) 시위가 있었다.²²⁾

20) 이 시위와 관련하여 일제의 한 기밀보고서는 “부산진 11일 오후 9시 야소교도가 주가 된 약 백명의 일단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개시하여 곧 해산을 명했다. 본건의 선동자는 외국인 여선교사 2명과 조선인 목사인 것 같아 목하 취조중”이라고 적고 있다.〔『朝鮮各地の獨立運動に關する件；大正8年3月12日 高第6763號』(金正明編, 앞의 책, 354쪽) 그러나 다른 문건에서는 이날 시위 인원을 50명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당시 참가자수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3月1日より31日に至る朝鮮獨立騷擾事件經過一覽表報告の件；朝鮮憲兵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김정명편, 앞의 책, 447쪽)

21) 『3月26日より4月5日に至る朝鮮騷擾事件に狀況報告の件；朝鮮軍參謀部』(김정명편, 앞의 책, 541쪽)에서는 이 시위를 수비대 보병과 경무기관이 협력하여 해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2) 부산진 시위는 이갑이 등의 좌천동 시위와는 별도로 동일 오후 8시 30분 일신여학교 여학생이 모여 주도한 것으로 일제는 파악하고 있다.〔『朝鮮各地の獨立運動に關する件；大正8年4月10日 高第10876號』(김정명편, 앞의 책, 589쪽) 부산진 시위에서는 학생이 아닌 김애운이라는 15세 소녀 가담했다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은 사실로 보

③ 사립옥성학교 교사 정인찬의 지도로 부산(제2공립)상업학교 졸업생 이남식은 옥성학교 학생 신기홍, 장룡형, 허택운 등과 밀의하여 영도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시위를 주도한 이남식 등은 옥성학교 뒤편 송림 사이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내로 행진하려다가 일경에 검거되었다.²³⁾ 영도 의거의 날짜는 불분명하나 기록의 전후 맥락으로 보아 4월 10일 이후로 짐작된다.

④ 4월 27일 오후 4시경 부산진역 인근 영가대 부근 철로가에서 조선인 청년 약 30명이 부산을 향하여 달려오는 열차에 투석세례를 가하여 유리창을 파괴하였다.²⁴⁾ 이들 청년의 신원은 밝혀지 않았으나, 30명이 집단으로 행동한 것으로 미루어 일종의 시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부산상고 학생인 박성해와 최익수, 그리고 김태곤(무직) 등은 3월 9일 경부터 동래고보생 엄진영, 이한주, 고영건 등과 연락을 꾀하여 동래고보, 부산상고, 일신여학교 등의 남녀학생과 인근 주민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행하려 계획했으나 사전에 일경에 탐지되어 검거되었다.²⁵⁾ 이 사실로 보면 3월 11일 일신여학교 여학생 주도의 좌천동 부산진 시위와 동래고보 학생 중심의 동래 시위는 본래는 부산지역 학생조직의 연합 시위로 계획되었던 것이나, 주모자들 가운데 일부가 사전에 체포됨으로써 무산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산지역 3·1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3월 11일과 3월 13일 만세 시위의 불길이 당겨진 이후 잠시 주

아 학생들만의 시위는 아니었던 것 같다.

23) 『경남독립운동소사』, 99쪽 및 『삼일운동실록』, 617쪽에 의거함. 단, 어느 책에서도 이남식 등의 영도 의거 날짜는 명확히 밝혀놓고 있지 않다.

24) 『朝鮮各地の獨立運動に關する件; 大正8年4月28日 騷密第1068號』(김정명편, 앞의 책, 664쪽).

25) 『박성해 외 2인 판결문』(大正8年6月14日/대구복심법원). 이 사건도 변지섭, 앞의 책과 그 밖의 부산 3·1운동사 서술에서 거의 빠트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춤했다가 3월 말, 4월 초 들어 다시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초의 3·1운동이 발생한 좌천동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시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은 좌천동 일대 인근에 부산진 공립보통학교, 일신여학교, 부산상업학교 등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부산부 시위의 특징 중 하나로 호주 기독교계 학교인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당시 부산진 일대에는 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가 있었고 좌천동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의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²⁶⁾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좌천동, 부산진에서의 만세 시위가 학생이 아닌 일반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²⁷⁾ 시위 관련 피검자들의 재판기록을 통해서 볼 때 시위 과정에서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연관된 흔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시위를 이끈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교회와의 연계보다는 부산지역 타 학교 학생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데 더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 점이 기독교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서북 지방 등 타 지역의 시위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어난 부산부의 3·1만세 시위운동은 방식은 약간 다르나 다양한 항일투쟁으로 이어졌다. 4월 27일 오후 7시 25분 서면 당감동 제1철교 건널목 부근에서 이곳을 통과하는 특별 열차에 큰 돌을 던져 2등 차창의 2중 유리가 박살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²⁸⁾ 이외 노동자들의

26) 이에 관해서는 임지원, 「한말~일제시기 부산지역민의 기독교 수용과 사회참여 - 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 구성원을 중심으로-」(홍순권 외, 『일제강점하 부산의 지역개발과 도시문화』, 선인, 2009 所收)을 참조할 수 있다.

27) 오미일, 『한국근대사자본가연구』, 한울아카데미, 2002 271쪽에서 저자는 3월 11일 밤 참가자 100명의 부산진 시위는 기독교도가 주동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8) 「朝鮮各地の獨立運動に關する件; 大正8年4月30日 騷密第1271號」(김정명편, 앞의 책, 668쪽). 이 사건은 각주 18)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 동일 인물들의 소행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항쟁으로는 4월 20일 부산의 전차 운전수 50여 명의 항일파업, 5월 16일 만철 관리국 철도공장 초량분공장의 조선인 직공 2백여 명의 항일파업 등이 있었다.²⁹⁾

나. 동래면 만세 시위

3월 11일 호주 장로과 경영의 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 중심의 독립만세 시위에 이어 곧 바로 부산부와 인접한 동래군 동래면에서도 독립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동래에서는 3월 13일 동래고보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동래장터에서 시위를 일으켰다. 동래에서의 만세 시위는 3월 7일 서울에서 온 학생대표와 부산상업학교 학생대표가 동래고보 학생대표인 엄진영, 김귀룡, 고영건 등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와 동시인 3월 10일경 동래고보 출신으로 당시 경성고등공업학교 재학 중이던 곽상훈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하여 수학 교사 이환과 접촉하여 시위 계획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래면 시위는 동래 장날인 3월 13일 오후 2시 엄진영이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만세를 선창한 것으로 시작되어 시가행진으로 이어졌으나, 일본 군경 발포와 주도자 검거로 진압되었다. 이 시위에는 약 200명의 군중이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동래고보학생들의 만세시위는 미리 상경하여 시위에 참여하고 귀향한 동래 출신 졸업생들의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매우 조직적인 성격을 띠었다. 당시 상경 후 귀향 활동한 인물로는 동명학교 졸업생 백광흠, 김진원, 동래고보 졸업생 곽상훈, 윤병인 등이 알려져 있다.

29) 삼일동지회, 『부산경남삼일운동사』, 1979, 62~78쪽 참조.

30) 「3月1日より31日に至る朝鮮獨立騷擾事件經過一覽表報告の件；朝鮮憲兵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김정명편, 앞의 책, 455쪽)

동래에서의 시위는 다음 장날인 3월 18일과 3월 19일에도 이어졌다. 이 시위를 주도한 집단은 범어사가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었다. 이미 2월 하순경 한용운이 서울에서 내려와 범어사 주지 오성월 등과 3·1운동에 대해 논의한 바 있었고, 범어사 학생 대표들이 미리 상경하여 서울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의 시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시위 준비는 3월 14일 김법린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다시 내려와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위 계획이 군경측에 사전 발각되었다. 그러나 검거를 피한 학생들이 18일 밤 서문 근처에서 동래시장을 거쳐 남문에 이르기까지 만세 시위를 한 뒤 헤어졌다.

이 날 일제의 보고 문건에 의하면 시위에는 약 50명이 참가하였으며, 일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 5명을 파견했다.³¹⁾ 19일 아침 다시 시장통에서 격문을 배포하고 오후 5시경에는 이근우, 김영식, 오시권 등 학생들이 동래시장 남문에서부터 동래주재소를 향해 가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군경에 의해 학생 차상명 등 34명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2명 집행유예,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동래면에서는 동래공립보통학교 졸업생인 손지수 등이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학생들과 함께 식수기념일(4월 23일)에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중 발각되어 10명이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³²⁾

당시 범어사 주도의 3·1운동과 관련해 미리 서울 3·1만세운동에 참가한 범어사측 인사로는 김법린(당시 경성중앙학림 학생), 차상명(범어사 불교강원 대표), 김영규, 김봉환(이상 지방학림 대표), 김상기, 김한기

31) 위와 같은 자료(김정명편, 앞의 책, 459쪽).

32) 「朝鮮各地의獨立運動に關する件; 大正8年4月17日 騷密第343號」(김정명편, 앞의 책, 628쪽).

(명정학교 대표로 갓 졸업 후 동래고보 입학) 등이 있었다. 3월 18일 범어사 만세 시위 또한 3월 13일 동래고보 학생 주도의 시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어진 동래면에서의 만세 시위는 동래군의 타 면과는 달리 학생조직과 종교조직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이는 시위의 주도층과 모의 과정에 있어서 부산부 좌천동 시위와 매우 유사하다. 동래면은 동래군의 수면(首面)으로 일찍이 계몽운동의 영향으로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있었고, 상무사, 기영회와 같은 상인단체의 조직 또한 발달해 있는 등 이미 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 구포면 만세 시위

구포에서는 3월 29일 만세 시위가 발생하였다. 구포 장날이기도 한 이 날 시위는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 온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양봉근(사립화명학교 교사 출신)과 접촉한 임봉래·윤경 등이 구포 지역 청년들과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하여 일으켰다. 김옥겸 등 주도 인물 12명이 시위 현장에서 출동한 일본 진압부대에 의해 검거되었다. 또 시위 참가자들이 이들의 구출을 위해 구포주재소를 공격하자 군경의 무자비한 발포로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8명이 추가로 검거되었다. 시위 군중의 규모도 약 1000명에 이르러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만세시위 가운데 가장 컸다.³³⁾ 일본인 군경 3명과 조선인 경찰 1명도 중상을 입은 큰 충돌이 있었다.³⁴⁾ 시위 군중 가운데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박도백

33) 「朝鮮各地の獨立運動に關する件 ; 大正8年3월30日 高第9467號」(김정명편, 앞의 책, 437쪽) 및 「3月1日より31日に至る朝鮮獨立騷擾事件經過一覽表報告の件 ; ; 朝鮮憲兵司令部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김정명편, 앞의 책, 468쪽) 참조.

34) 김옥겸 외 42명 판결문(대정 8년 7월 16일/부산지방법원) 참조. 당시 시위 참여자들은 주재소 근무 三浦良平, 동 순사보 金順步, 부산헌병분대 응원헌병 오장 谷元喬, 동상등병 近藤六三郎 등에게 타박상을 입었다. 『삼일운동실록』에서는 임도백, 진유안 등 시위 참가자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이용락, 『삼일운동실록』, 613~614쪽) 또 「3月26日より4月5日に至る朝鮮騷擾事件に狀況報告の件 ; 朝鮮軍參謀部」(김정명편, 앞의 책, 540쪽)에서는 이 시위 참가자 규모를 약 1,000명으로 보

은 전신 총상을 입었다. 이 날 시위로 전후 42명이 구포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4명은 면소되고, 2명은 방면되었으며, 나머지는 징역형을 받았다.³⁵⁾

라. 동래 기타면 및 인근 지역 만세 시위

부산·동래지역의 만세 시위는 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컸다. 구포면에 이어 동래군에서 세번째 시위가 발생한 곳은 기장면으로 4월 5일, 8일, 10일 지속적으로 시위가 발생하였다. 기장에서는 서울 유학 중 일시 귀향한 김수룡, 박일형의 두 학생으로부터 3·1운동에 관한 서울 정세 보고를 들은 청년 김도엽 등 8~9명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준비하였다. 기장면 시위는 또 3월 13일 동래면 시위에서 마부가 주워온 33인의 독립선언서가 발단이 되었다. 이 독립선언서를 접한 김도엽, 구수암 등 기장 유지들은 기장 장날인 4월 5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기장면사무소 서기 최창용을 설득해 끌어 들여 시위 준비를 진행해 갔다. 구포 시위의 경우에서와 같이 면서기를 끌어들이었다. 이 시위는 계획대로 진행되어 4월 5일 장날 수 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장 장터에서 실행에 옮겨졌다.³⁶⁾ 이날 시위는 일군경의 진압으로 일단 해산되었으나, 이후 일군경에 의한 주모자 검거 열풍이 불자, 이것이 기장 일대의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다.³⁷⁾ 이어서 8일 오후 10시 기장에서 일어난 시위에는 노동자와 부녀로 구성된 약 70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일제는 이들에게 위협 발포를 하여 해산시켰다.³⁸⁾

고하고 있다.

35) 위와 같음.

36) 일제측의 한 보고서는 4월 5일 기장장터 시위에 약 3백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3月26日より4月5日に至る朝鮮騷擾事件に關する狀況報告の件 ; 秘 朝特報 第9號 大正8年4月7日」(김정명, 앞의 책, 541쪽)

37) 「3月26日より4月5日に至る朝鮮騷擾事件に狀況報告の件 ; 朝鮮軍參謀部」(김정명 편, 앞의 책, 541쪽) 참조.

기장 시위는 다음 장날인 4월 10일에도 이어졌다. 이 날은 기장 공립 보통학교 학생 50명이 모여 기장 읍내를 돌며 만세 시위를 전개하여 그 규모가 최대 1,000명에 이르렀다. 이 시위는 11일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기장 시위는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물론 상인, 노동자, 부녀자, 학생 등 매우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기독교나 불교 등의 종단이나 유림층의 지도력에 뚜렷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해 농민층 내부에 누적되어온 반일감정이 독립만세시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날인 10일에도 1,000명 가까운 군중이 오전 9시 기장 장터에 모여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제지에도 해산하지 않았다. 마침내 일제측은 위협 발포를 하여 자정이 넘은 11일 밤 오전 1시에야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다.³⁹⁾

기장면의 시위는 4월 9일 인근의 장안면 좌천장터 시위로 이어졌다. 좌천장터 시위에는 약 5백 명의 군중이 참여하였다.⁴⁰⁾ 기장면 시위가 인근으로 확산되면서 4월 11일에는 일광면에서도 약 40여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였다.⁴¹⁾

또 동래 인근 양산에서도 3월 27일 양산군청 앞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시위를 주도한 엄주태, 이귀수 등은 3월 13일 동래에서 만세 시위를 목격하고 ‘독립선언서’ 1통을 얻어 시위를 계획했다

38) 『朝鮮各地의獨立運動に關する件 ; 大正8년4월11일 高第11014號』(김정명편, 앞의 책, 594쪽).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래군 기장, 8일 오후 10시 기장에서 노동자 및 부인으로 구성된 약 70명의 군중이 운동을 개시하고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주재소 순사가 위협 발포하여 해산시켰다. 10일 오전 9시 보통학교 생도 약 50명이 同地에서 운동을 개시했으나 바로 해산시켰다. 同郡 左川 10일 오전 장안면 좌천에서 약 5백명의 군중이 운동을 개시하여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위협 발포하여 곧 바로 해산시켰다.”

39) 『朝鮮各地의獨立運動に關する件 ; 大正8년4월11일 高第11167號』(김정명편, 앞의 책, 597쪽)

40) 김윤희 판결문(독립운동사자료집 5, 1201쪽) 참조.

41) 박영준 판결문(독립운동사자료집 5, 1210쪽) 참조. 이 시위는 박영준이 4월 5일 기장 시위에 참여하고 돌아와 마을의 유지들과 모의하여 일으켰다.

는 재판기록의 진술로 보아 부산과 동래 시위가 양산 만세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²⁾ 이밖에 4월 12일 발생한 김해군 명지면 영강시장 시위도 부산 또는 동래 구포 등 인근 지역 만세 시위로 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5> 부산지역 부면별 시위발생 상황

	3.11~ 3.20	3.21~ 3.31	4.1~ 4.10	4.11~ 4.20	4.21~ 4.30	계	비고	
							발포해산	비발포
부산부	1		3	1		5	1	4
동래면	3				1*	3	2	1
구포면		1				1	1	
기장면			3			3	3	
장안면			1			1	1	
일광면				1		1		1
계	4	1	7	2	1*	14	8	6

비고: *는 모의하다 발각되어 실제 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건.

2. 부산지역 3·1운동 주도층(피검자)과 부·면별 특성

1) 부산지역 부·면별 주도층(피검자)의 계층적 구성⁴³⁾

이제 앞서 살펴본 부산지역내 각 지역의 시위 주도층의 계층적 성격을 피검자들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인적사항의 분석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 임주태 외 5인 판결문(『독립운동사자료집』5, 1218쪽) 참조.

43) 이하 <표6-1>~ <표8-2>의 부산지역 3·1운동 관련 피검자 분석은 수집 가능한 판결문(김영규, 김옥겸, 구수암, 김윤희, 박영준 등의 재판기록)을 기초 이루어진 것이다. 그 피검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별도 정리하여 이 글 말미에 첨부한 <부표>를 참조할 것.

가. 부산 시내 각처 : 부산부 시내 각처에서 검거된 피검자 23명은 교사 4명, 무직 1명 외에는 나머지 모두 10~20대의 학생들이다. 교사의 지도하에 일신여학교 여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그 외 별다른 특징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 동래면 : 피검자 전원 동래고보 학생인 동래 학생 시위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물론 그들에 의한 시위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은 한말 이후 동래 기영회를 중심으로 한 상업세력의 성장, 또 그들이 주도한 계몽운동과 교육사업, 즉 신식학교의 설립 등 근대적 도시 기반의 확대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면단위에서 해당 지역 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것은 다른 농촌 지역의 만세 시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한 범어사 승려 학생 시위에서 피검자는 <부표>의 순번47~59에 해당한다. 계층별로는 학생과 승려만 발견되며,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주축이다. 지방학림과 명정학교의 학생, 범어사 승려가 주요 구성원이다. 승려들이 지도적 역할을 했고, 연령대가 높은 상급학교 지방학림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준다.

<표6-1> 직업별 구성

단위 : 명

직업	학생	승려	계
인원수(%)	10(76.9)	3(23.1)	13(100)

<표6-2> 학교별 구성

단위 : 명

구분	지방학림	명정학교	계
인원수(%)	8(72.7)	3(27.3)	11(100)

* 명정학교 학생들은 모두 20세 미만으로 16세, 18세 19세의 학생들이다.

<표6-3> 연령별 구성

단위: 명

연령별	10~19세	20~29세	30세 이상	계
인원수(%)	3(23.1)	10(76.9)	0	13(100)

다. 구포면: 분석 대상자는 <부표>의 순번 61~102로 총 42명이다. 이들은 구포장터에서 발생한 시위 피검자들로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이 43%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미곡상 등 곡물상의 비중이 26.2%에 이를 정도로 많고, 기타 상인까지 포함하면 상인층이 33.3%에 이른다. 이러한 피검자들의 구성비로 볼 때 구포 장터 만세 시위는 시장 상인들의 주도성이 명확하다.

피검자 거주지도 구포면 이외 거주자들이 확인 가능한 피검자 42명 중 10명(23.8%)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집산지로서 구포 장시의 기능적 특성 및 규모 등과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피검자들의 연령별 구성도 시가지와는 달리 20~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60대까지 포괄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노소를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피검자 중 상인층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시위의 계획과 전개 과정에서 상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한 상권피해자이면서도 장시를 연결하는 정보력을 소유하고 정세 변화에도 밝아 능동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곡물상의 경우는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을 통해 성장한 상인들로 상당수의 지주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역 유지들과 시위를 모의한 양봉근 등은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포면 서기 임봉래를 끌어들었는데 이 점도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시위 전개에 앞서 독립선언서와 격문 등 전단의 인쇄와

배포가 있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면사무소의 등사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처우 등에 있어서 일본인 관리들과의 민족적 차별이 이들을 만세시위에 끌어들이는 유인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기장면 등 다른 농촌지역 시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행정구역상 동래군에 속했던 구포면에서의 만세 시위는 발생 일자로 보아 앞서 부산부 및 동래면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크다. 또 구포 시위 참가자가 가운데 김해 등의 거주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근 김해 지역의 시위와 연관성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7-1> 직업별 구성

단위: 명

직업	농업	곡물상	기타 상인	노동	기타	계
인원수(%)	18(42.6)	11(26.2)	3(7.1)	7(16.7)	3(7.1)	42(100)

* 곡물상에는 미곡상도 포함한다.

* 노동에는 직공 등 일반 노동자 외에 점원 1과 수부 1를 포함한다.

* 기타에는 면서기 1, 면사무소 소사 1, 의생 1를 포함한다.

<표7-2> 거주별 구성

단위: 명

구분	동래군 구포면	동래군 기타면	부산부	김해군	기타지역	계
인원수(%)	32(76.2)	2(4.8)	1(2.4)	5(11.9)	2(4.8)	42(100)

* 기타지역은 합천과 청도 각 1인.

<표7-3> 연령별 구성

단위: 명

연령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인원수(%)	0	18	16	3	2	2	41

* 대상 인원 중 1명은 원문 연령 표기가 불확실하여 제외함.

라. 기장면 : 총 분석 대상 인원은 <부표>의 순번 103~110이며, 총 9명이다.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지만, 피검자들은 학생과 점원 등 다양하며, 특이하게도 주도층 가운데 농민은 발견되지 않는다. 시위 참여자는 농민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것이나, 시위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점원과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20세 전후 청년들이었다. 피검들의 연령도 20대가 주축이고 10대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피검자 10명 중 9명은 기장면 거주자이며, 1명은 일광면 거주자이다.

<표8-1> 직업별 구성

단위: 명

직업	학생	점원	해초상	대금업	면서기	무직	계
인원수(%)	1	2	1	1	1	3	9

<표8-2> 연령별 구성

단위: 명

연령별	10~19세	20~29세	30세 이상	계
인원수(%)	3	6	0	9

2) 주도층의 거주지와 3·1운동 전개양상의 부·면별 특성

가. 부산부 및 동래면 : 1910년대 부산부 내 도시 변두리인 부산진과 좌천동 일대와 영도, 그리고 농촌지역 내 일부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던 동래군 동래면 일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부산부에 속하는 지역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 의한 도시적 발전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곳으로 1914년 지방제도 개편 때 부산부에 편입된 지역이다. 원래 도심 외곽은 조선인들의 집주지역이다. 1914년 당시는 일본인 인구가 조선인 인구를 약간 상회하였지만, 1919년경에는 부산부의 총인구는 약 7만 4

천명으로 조선인이 59%, 일본인이 41%를 차지하였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생 수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인 학교들이 주로 도심 가까이에 위치했던 반면 조선인 학생들이 다니는 부산제2상업학교 등은 부산진에 자리잡고 있었다. 좌천동과 부산진에서 학생층을 중심으로 시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도 이러한 부산부 내 거주공간이 민족별로 이원화된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행정구획상 농촌지역인 동래군 동래면은 동래군청이 소재해 있는 전통적인 읍치 중심지로서, 또 동래군의 수면으로서 동래군 12면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면이다. 한말 이래 온천장의 개발로 일본인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었고, 1915년에는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에서 온천장까지 전철을 놓으면서 점차 시가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시위가 발생한 동래장터는 동래면의 중심 시가지라고 할 수 있다. 동래면은 3·1 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근대적 도시화 과정을 겪었다. 그 결과 1923년에는 지정면으로 승격되었고, 1931년에는 동래읍으로 승격되었다.⁴⁴⁾

동래군의 다른 면과는 달리 동래면에는 강제병합 이전에 사립학교인 동명학교가 세워졌고⁴⁵⁾, 이는 이후 동래고보의 전신이 되었다. 또 이밖에도 큰 사찰인 범어사 산하의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등이 있어서 동래

44) 한말 일제 초기 동래지역의 도시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 권력』(선인, 2010) 제2부 제2장 「동래의 도시화 과정과 ‘주민대회’」에서 상술한 바 있다. 일제는 1917년 10월 「면제」를 공포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면 행정구역을 일반 면과 지정면으로 이원화하였다. 본래 지정면은 조선 내 2,507개 면 중 ‘상공업의 발달이 현저하고 면민의 경제 상태 기타가 일반면에 비교하여 그 정도를 달리한 면’을 선정하여 지정한 것인데, 실제로는 다수의 일본인이 밀집되어 그 상황이 상대적으로 府에 가까운 면에 한정되었다. 1923년 4월 동래면이 일반면에서 지정면으로 승격함으로써 당시 조선 내 지정면은 총 37개가 되었다.

45) 동명학교는 1907년 삼락학교가 개양학교를 인수한 후 개명한 학교이다. 1906년 기영회 회원인 송상중이 설립했으며, 개양학교 역시 애초 설립자는 기영회 세력으로, 모두 동래 토착 상업세력인 기영회와 연관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홍순권, 위의 책, 231~232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내 불교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또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래군 내에서 가장 먼저 독립만세 시위가 발생케 된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이웃한 동래군 타면은 물론 양산, 김해 등 인접 지역의 시위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나. 구포면 및 기타 인접 지역 : 구포면을 비롯하여 다른 면들은 3·1운동의 전개 양상에 있어서 부산부나 동래면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 가운데 구포면은 동래군에서 상대적으로 면세가 큰 면에 속한다.⁴⁶⁾ 구포시장은 낙동강의 큰 포구로서 북쪽으로 동원진과 연결되어 경남은 물론 멀리 경북지역으로부터 물산이 집결되는 상업중심지로서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구포시장은 전국적으로 볼 때도 거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하루 거래액 1,500원으로 다른 장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⁴⁷⁾ 특히 대규모의 곡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탓으로 많은 곡물상이 상주하고 있었다. 1912년 우리나라 최초 민족계열 지방은행인 구포은행이 이곳에 자리 잡은 것도 이러한 상업적 입지조건과 상업자본의 형성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장날을 이용한 구포의 만세 시위를 곡물상 등 상인들이 주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구포 장터 시위에는 구포면 주민 뿐만 아니라, 동래군 사상면이나 김해 등 인근지역의 거주민도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만큼 구포시장 상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컸으며, 이는 또 인근 지역 만세 시위 발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으로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장면은 동래면과 인접한 관계로 동래면 시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기장면과 인접한 일광

46) 1925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동래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총인구 16,871명의 동래면이고, 다음으로 서면 11,244명, 사하면 9,992명, 구포면 8,273명의 순이다. 구포면은 인구수에 있어서 동래군 총 12개면 중 제4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1926) 제7권에 실린 통계표, 3~4쪽 참조.

47) 김의환, 앞의 논문, 199쪽 참조.

48) 차철욱,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9, 2001 참조.

면 시위는 4월 5일 망건을 팔러 기장장에 갔던 박영준이 우연히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돌아와 마을 유지들과 모의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주모자인 박영준은 체포되어 1년 징역형의 옥고를 치렀다.⁴⁹⁾ 장안면 좌천장터 시위 또한 4월 5일 기장면 시위 소식을 듣고 자극받은 농민 김윤희 등이 여러 동지들과 모의하여 좌천장날인 4월 8일 장안면 좌천리에서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주모자인 김윤희, 신두성 등을 비롯하여 가담자 5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김윤희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⁵⁰⁾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동래군에 속했던 동래(면)를 비롯하여 구포, 기장, 일광, 장안 등 농촌지역에서의 만세 시위의 확산은 전통적인 장시 네트워크가 큰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시를 연결하는 지방 상인들이 정보 전달의 매체로서 큰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3·1운동의 확산에 큰 기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지역 3·1운동은 근대적 교통망인 철도와 전통적 상업 유통망인 장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파장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IV. 부산지역 3·1운동의 여파

1919년 3·1운동 이후 부산지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1919년 9월에는 동래를 거점으로 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자들이 대거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고⁵¹⁾, 또 잘 알려진 바대로 1920년 9월에

49) 박영준 판결문(大正 8년 6월 28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210~1211쪽] 참조.

50) 김윤희 판결문(大正 8년 5월 21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201쪽] 참조.

51) 『地方民情彙報 ; 高警報 30610號 大正8년 10월 28일』(『삼일운동(1)』, 국학자료원, 1967, 560-561쪽. 정인찬은 이후 상해임시정부의 지령에 따라 임시정부 경남 간부 및 간사장의 직책으로 안희제·윤현태 등과 손을 잡고 부산을 무대로 김해·밀양·양산

는 의열단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3·1운동 이전 1910년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서 항일세력의 비밀결사운동이 크게 발전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비밀결사와 3·1운동세력, 그리고 의열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의열단원들의 출신 지역이 밀양과 부산 등 동부 경남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3·1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⁵²⁾ 물론 의열단 운동 이외에도 3·1운동이 지역을 막론하고 이후 민족운동 전반에 걸쳐 광범한 영향을 미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3·1운동은 이후 부산지역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의사 지방자치제인 부면협의회 선거제를 실시하게 되는데⁵³⁾, 각 지방의 유지층은 이를 계기로 정치세력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부산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은 일본인이 도시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부산부보다는 조선인 유지층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동래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직접 면협의회원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동래 3·1운동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엄진영과 박일형 등이 동래지역의 정치적 압력단체로 결성된 경오구락부에 참여했던 것이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또 1920년대 후반 부산부는 물론 동래, 기장 등지에서 청년운동에 이어 신간회 지회 활동 및 근우회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일대에 걸쳐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다가 일경에 검거되어 1929년 2월 18일 출판법 위반(出版法違反) 죄명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변지섭, 『경남 독립운동소사』, 100쪽)

52) 이 점에 대해서는 전성현, 「의열단과 의열투쟁」(홍순권 외, 『부산·울산·경남지역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 선인, 2011)에 자세한 논의가 있다. 특히 ‘부산지역 의열투쟁 관련 인사들의 거주지가 전부 좌천동과 범일동에서 태어나거나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같은 책, 145쪽)

53) 1920년 지방제도 개정에 대해서는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의 제2부 제1장 「재부산 일본인사회의 지방자치제 실시 논의와 지방제도 개정 추이」를 참조.

으로 활성화되었던 것도 부산지역 3·1운동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⁵⁴⁾

아무튼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동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3·1운동 이후 어떻게 새로운 지역 아이덴티티 형성해 나갔는지는 장차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V. 맺음말

3·1운동은 1910년대 무단식민통치와 제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파급된 배경에는 철도와 같은 빠른 교통수단, 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 등사관의 등장 등 완만하지만 개항 이후 지속되어 온 근대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3·1운동은 총체적으로 보면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이면서도 동시에 식민지적 근대화에 대한 저항운동이기도 했다.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근대적 민족의식의 성장의 소산이며, 그 배후에 근대적 시민의 성장이 있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한 근대적 민족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의 하나가 바로 부산이었다.

이제 이러한 총론적 이해를 전제로 1919년 3~4월에 일어난 부산지역의 만세시위 운동의 지역적 특징을 결론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산지역의 초기 만세시위는 여러 경로로 서울에서의 만세시위

54) 오미일,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 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향도부산』 12, 1995. 김승,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등 참조.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일어났다. 서울의 만세 시위를 부산에 전달한 이들은 주로 부산 출신의 재경 인사와 부산 거주자로 미리 상경하여 서울 만세 시위에 참여한 인사들이었다.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3·1 독립만세시위가 발생한지 열흘 만에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있었던 것은 두 지역이 근대적 교통수단인 경부선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산지역의 시위가 서울의 종교 조직 및 학생세력과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② 부산지역의 만세시위는 처음에는 부산부 조선인 거주지역에서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동래로, 그리고 점차 인근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3·1운동의 전국적 전개 양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일제의 무차별적 위압적 진압에 대응해 시위 방식도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띠어 갔다.⁵⁵⁾

③ 좌천동과 동래에서의 초기 시위운동은 주로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하고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시위가 반복되면서 노동자 등도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④ 구포와 기장 등 농촌 지역에서의 시위는 시장의 상인층과 농민층이 주된 참가자였다. 그러나 구포의 경우는 곡물상이 시위를 계획하고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기장의 경우도 시위를 계획하고 이끈 것은 농민층이 아니라 학생, 점원 등의 청년층이었다.

⑤ 반드시 부산지역만의 특징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시위 과정에서 태극기 제작과 전단지 작성은 필수적이었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면사무소의 서기가 시위 계획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55) 정연태 등의 기존 연구에서는 부산부는 5번의 시위 가운데 비폭력 4번, 충돌 1번이었음에 반하여, 동래군은 10번의 시위 가운데 발포 6, 충돌2, 비폭력 2차례로 조사되었다.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위 양상이 종전과는 달라져 시위에 사용된 격문, 독립선언서 등 전단이 시위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으며, 또 이러한 전단 제작을 위해서는 등사판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등사판은 학교나 면사무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면서기 등의 만세 시위 참여는 조선인 관리에 대한 일제의 민족적 차별 정책이 그 원인일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⁵⁶⁾

⑥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만세 시위운동은 김해, 양산 등 인근 농촌지역에서의 만세 시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점차 경상남도 일대 전 지역으로 만세 시위가 확산되는 데 작·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지역 만세 시위운동은 지역 중심성이 뚜렷하다.

⑦ 종교적으로는 부산부 좌천동과 동래 시위에서와 같이 기독교와 불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독교의 경우 서북지방의 기독교처럼 부산지역 교회 조직이 전면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경상남도 내 다른 군에서처럼 유림들의 역할도 발견되지 않는다.

⑧ 부산지역의 3·1운동은 이후 지역사회의 정치 지형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해외 독립운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56) 조선헌병대사령부, 『朝鮮騷擾事件狀況』, 1919(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6, 수록), 759~792쪽. 도면회, 「3·1운동 원인론에 관한 성찰과 제언」, 『역사와현실』 109, 2018, 478쪽 참조. 헌병경찰이 3·1운동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도별로 수집한 조선인의 일제 통치에 대한 불평 사항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관리의 대우 상의 차별’이 있다.

<부표> 부산지역 31운동 관련 피검자 주요 인적사항

	성명	거주지	시위장소	시위 날짜	직업	나이	형량	자료	비고
1	주경애		시내각처	3.11	교사		징역 1년 6월	부산경남31 운동사, 주경애 외 10인	일신여학교
2	박시연		시내각처	3.11	교사	18	징역 1년 6월	상동	상동
3	김반수		시내각처 (일신여학교)	3.11	학생	15	징역5월	상동	상동
4	김복선		시내각처	3.11	학생	18	징역5월	상동	상동
5	김응수		시내각처 (일신여학교)	3.11	학생	18	징역5월	상동	상동
6	박두천		시내각처	3.11	학생	23세		공훈록	상동
7	배원수	부산부 범일동1 1	좌천동	5.28	학생	19세		공훈록	부산진공립 보통
8	송명진		시내각처 (일신여학교)	3.11	학생	17	징역5월	공훈록	일신여학교
9	심순의	부산 좌천동	좌천동	3.11	학생	17세	징역5월	공훈록	일신여학교
10	이갑이	부산 좌천동	시내각처	4.8	학생	23세	징역 10월	공훈록	부산진공립 보통학교
11	김애련	부산	시내각처	3.11 /4.8	학생	18세	징역6월	공훈록	부산진공립 보통학교
12	홍재문	밀양	시내각처	3.11	교원	23세		공훈록	부산진공립 보통학교
13	박성해	부산부 좌천동	-	사전 검거	학생	21세	징역8월 집행유 예2년	박성해외 2인 판결문	부산부공립 상업학교
14	김태곤	상동	-	상동	무직	20세	태형 90대	상동	상동
15	최익수	상동	-	상동	학생	19세	징역3월 집행유 예2년	상동	상동
16	김귀룡	동래면 수안동	동래	3.13	학생	22세	징역 1년6월	김귀룡·고영 간·서진령 판결문	주동

142 향도부산 37

	성명	거주지	시위장소	시위 날짜	직업	나이	형량	자료	비고
17	고영건	동래면 수안동	동래	3.13	학생	22세	징역1년	상동	
18	서진령	동래면 북천동	동래	3.13	학생	21세	징역8월	상동	
19	곽상훈		동래	3.13	학생			부산경남삼 일운동사	
20	구진영		동래	3.13	학생			상동	
21	김기삼	동래	동래	3.13	학생	18세		상동/공훈록	동래고보 3년
22	김명규		동래	3.13	학생			상동	
23	김성조		동래	3.13	학생	18세	징역1년	상동	
24	김원룡		동래	3.13	학생			상동	
25	김인호	동래	동래	3.13	학생	19세		상동	동래고보 학생대표
26	김철규		동래	3.13	학생			상동	
27	박득룡		동래	3.13	학생			상동	
28	박은수		동래	3.13	학생			상동	
29	박임갑		동래	3.13	학생			상동	
30	백정기		동래	3.13	학생			상동	
31	손영수		동래	3.13	학생			상동	
32	신종은		동래	3.13	학생	20	징역8월	상동	
33	신주성	부산	동래	3.13	학생			상동/공훈록	동래고보
34	엄병영	부산	동래	3.13	학생			상동	동래고보
35	엄진영	동래	동래	3.13	학생			상동	동래고보
36	윤병두		동래	3.13	학생			상동	동래고보 학생대표
37	윤삼동	동래	동래	3.13	학생			상동	동래고보
38	이상덕	동래	동래	3.13	학생			상동	
39	이수열		동래	3.13	학생			상동	
40	이인우		동래	3.13	학생			상동	
41	이환		동래	3.13	학생			상동	
42	임명조	동래	동래	3.13	학생			상동/공훈록	동래고보 2년
43	임성봉		동래	3.13	학생			상동	

	성명	거주지	시위장소	시위 날짜	직업	나이	형량	자료	비고
44	정호중	동래	동래	3.13	학생			상동/공훈록	동래고보 학생대표
45	최익수		동래	3.13	학생			상동	
46	추규영		동래	3.13	학생			상동/공훈록	동래고보
47	김영규	동래 북면 범어사	범어사	3.18	승려	22세	징역2년	판결문 19.5.20대구	학생시위 기획
48	김상기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25세	징역 1년	상동	지방학림
49	김한기	동래 북면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23세	상동	상동	차상명과 시위계획
50	김영식	동래 북면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16세	징역 6개월	상동	범어사 명정학교
51	김재호	동래 북면 범어사	범어사	3.18	승려	20세	상동	상동	
52	이근우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20세	징역 6개월	상동	지방학림
53	김해관	동래 북면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26세	상동	상동	지방학림
54	양수근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22세	상동	상동	지방학림
55	오시권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19세	상동	상동	지방학림
56	박영환	동래 북면 범어사	범어사	3.18	승려	26세	징역 6개월	상동	
57	신종기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23세	상동	상동	지방학림
58	윤상은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25세	상동	상동	지방학림
59	박재삼	동래 북면 범어사	범어사	3.18	생도	18세	상동	상동	명정학교
60	박영주		범어사	3.18				부산경남삼 일운동사	미상
61	김옥겸	김해 하동 덕산리	구포	3.29	농업	27세		김옥겸외 41인 판결문	주동자 (1892.3생)

	성명	거주지	시위장소	시위 날짜	직업	나이	형량	자료	비고
62	강두조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농업	23세		판결문	
63	강석이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노동	55세	징역1년	판결문	
64	권용학	동래 구포 금곡리	구포	3.29	노동	29세	징역4월 (집행유 예2년)	판결문	
65	김달수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곡물 상	32세	징역1년	판결문	
66	김택원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식기상	61세	징역8월	판결문	
67	김영길	김해 대저 사두리	구포	3.29	농업	30세		판결문	
68	김용이	부산부 초량동	구포	3.29	직공	30세		판결문	
69	김윤길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곡물상	30세		판결문	
70	김장학	김해 대저 덕도리	구포	3.29	농업	25세		판결문	
71	노원길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곡물상	38세		판결문	
72	노원필	동래 구포?	구포	3.29	魚商	45	징역4월 (집행유 예2년)	판결문	
73	도우환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노동	29세	징역4월 (집행유 예2년)	판결문	
74	박도백	김해 대저 출두리	구포	3.29	농업	28세		판결문	

	성명	거주지	시위장소	시위 날짜	직업	나이	형량	자료	비고
75	박덕홍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미곡상	24세	징역8월	판결문	
76	박영초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미곡상	49세	징역1년	판결문	
77	박용수	김해 대저 소덕리	구포	3.29	농업	?		판결문	
78	박석오	동래 구포 금성리	구포	3.29	농업	20세		판결문	
79	백인봉	동래 사하 삼락동	구포	3.29	농업	33세		판결문	
80	변봉엽	동래 구포 금성리	구포	3.29	곡물상	26세	징역 1년3월	판결문	
81	손진태	합천 초계 초계리	구포	3.29	곡물상	21세		판결문	경북
82	신성집	동래 사상 모라리	구포	3.29	노동	57세		판결문	
83	안화중	동래 구포 금곡리	구포	3.29	면사 무소 소사	38세	징역6월	판결문	
84	양대용	동래 구포 금곡리	구포	3.29	농업	27세	징역4월 2년집유	판결문 공훈록	梁太鎔 [이명 梁大濬]
85	유기호	동래 구포 화명리	구포	3.29	농업	30세		판결문	
86	유진영	청도 대성 고수리	구포	3.29	점원	24세	징역8월	판결문	경북
87	윤경	동래 구포 화명리	구포	3.29	농업	31세		판결문	주동자

	성명	거주지	시위장소	시위 날짜	직업	나이	형량	자료	비고
88	윤경봉	동래 구포 대리	구포	3.29	농업	23세	징역8월	판결문	
89	윤대근	동래 구포 덕천리	구포	3.29	수부	23세		판결문	
90	윤장수	동래 구포 화명리	구포	3.29	필상	25세	징역4월 집유2년	판결문 공훈록	
91	윤정은	동래 구포 대리	구포	3.29	농업	68세	징역 1년3월	판결문 공훈록	
92	이몽석	동래 구포 남산정	구포	3.29	농업	22세	징역4월 집유2년	판결문	
93	임봉래	동래 구포 화명리	구포	3.29	면서기	30세		판결문 공훈록	주동자
94	정치호	동래 구포 금곡리	구포	3.29	농업	28세	징역4월 집유2년	판결문	
95	정태호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의생	30세		판결문	
96	조해규	동래 구포 덕천리	구포	3.29	농업	41세		판결문	
97	진유관	동래 구포 금성리	구포	3.29	농업	30세		판결문	
98	최종호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곡물상	31세		판결문	
99	최한봉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곡물상	37세		판결문	

	성명	거주지	시위장소	시위 날짜	직업	나이	형량	자료	비고
100	허정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곡물상	26세		판결문	
101	허치옥	동리 구포 구포리	구포	3.29	농업	33세	징역1년	판결문 19.7.16부산 공훈록	
102	허희중	동래 구포 구포리	구포	3.29	곡물상	33세	징역1년	판결문	
103	구수암	동래 기장 동부리	기장	4.05	금대업	20세	징역1년	공훈록/ 판결문 19.6.11대구	
104	권철암	동래 기장 동부리	기장	4.05	무직	19세	징역1년	공훈록/ 판결문 19.6.11대구	4.08,10,11 에도 시위
105	김도엽	동래 기장 대라리	기장	4.05	점원	21세	징역 2년 6월	판결문 19.6.11대구 공훈록	1930년 중국망명
106	김수룡	동래 기장 교리	기장	4.05	학생	20세		판결문 19.6.11대구	기장 장날 이용
107	오기원	동래기 장 대라리	기장	4.05	점원	21세	징역8월	판결문 19.6.11 공훈록	기장광복회 활동.출옥 후중국망명
108	이택규	동래 기장 동부리	기장	4.05	무직	21세	징역1년	판결문 19.6.11	
109	장봉기	동래 기장 대변리	기장	4.05	해초상	19세	징역8월	판결문 19.6.11	
110	최기복	동래 기장 서부리	기장	4.05	무직	19세	징역 1년	판결문/ 공훈록	
111	최창용	동래 기장 동부리	기장	4.05	면서기	22세	징역 1년	판결문 19.6.11 공훈록	

	성명	거주지	시위장소	시위 날짜	직업	나이	형량	자료	비고
112	김윤희	동래 정관면	장안면 좌천리	4.09		31세	징역 610월	김윤희 판결문	장안면 좌천리 장날
113	신두성	부산	장안면	4.09				공훈록	장안면 좌천리 장날
114	박영준	일광면 이천리	기장	4.05, 4.11	망건 제조업	33	징역1년		

비고: 위 표는 본문의 피검자 신원 분석을 위해 조사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된 것이며, 수록대상자는 실제 피검자 중 판결문, 기타 자료 등을 통해 피검 사실이 확인된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부산부 및 동래면 학생 주도 시위 사건은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명단을 그대로 실었다. 구포 3·1운동 관련 피검자의 형량은 범죄인통지서철에서 확인된 것만 수록하였다. 또 위 표의 일부 빈칸은 추후 자료 확인을 통해 보완이 필요함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 강대민, 「부산지역 항일 학생운동의 성격」, 『문화전통논집』 9, 2001.
- _____,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 2010.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2, 1966.
- 國學資料院編, 『三·一運動編(一)』, 1967.
- 김상환,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 『지역과 역사』 29, 2011.
- 김 승,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김의환, 「부산지방의 항일독립운동사고·3·1운동을 중심으로」, 『한일연구』 1, 1972.
-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1(民族主義篇)』, 愿書房, 1967.
- 김진호·박이준·박철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 : 국내 3·1운동II-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도면희, 「3·1운동 원인론에 관한 성찰과 제언」, 『역사와 현실』 109, 2018.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6, 1973.
- 朴慶植, 『朝鮮三·一運動』, 平凡社, 1976.
- 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1966.
- 오미일,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 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항도부산』 12, 1995.
- 이용락, 『삼일운동실록』, 1969.
- 삼일동지회, 『부산경남삼일운동사』, 1979.
- 정연태,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 연구』(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청년사, 1989.
- 채상식, 「한말.일제시기 범어사의 사회운동」, 『한국문화연구』 4, 1991.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 편,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도서출판 경남, 2007.
- 홍순권 외, 『부산·울산·경남지역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 선인, 2011.

|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Busan area in 1919

Hong, Soon-Kwon

The first demonstration for the Korea's independence in Busan area occurred at Jwachon-dong, the outskirt of Busan-bu on the March 11th, 1919. The people who projected and leaded the first demonstration in Busan were the teachers and students of Ilsin girls' school which was governed by Australian Christian Mission. The next demonstration occurred at Dongnae marketplace, the main street of Dongnae-gun. Its leaders were the residents who moved from Busan to Seoul, and those who came back from joining the Seoul demonstration in March 1st, 1919. The Busan demonstration occurred relatively earlier than other providences of the south part of Korea Penisular such as Honam, Kangwon etc. when we take the distance between Seoul and Busan into consideration. It could be so fast because of the Kyong-Bu Railroad Line as the modernized traffic network opened in 1905.

The demonstration was spreaded step by step from the urban district or the main street of the Dongnae-gun into other rural communities. In the urbarn district or the main street of the Dongnae-gun the demonstrations were leaded by the students or young workers, but in the rural communities the demonstrations were leaded and attended by local merchants or farmers.

We can find out the Christians and Buddhist students or monks, but cannot find out any Confucian groups nor Cheondo-gyo believers who attended initiatively the independence demonstration in the other provinces. It is very interesting that some myeon officials attended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y provided mimeographs that were necessary for making out a large quantity of handbills during the demonstration. Or it is possible to guess that they attended the demonstration because of racist practices of colonial policy under the Japanese rule.

Keyword: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lsin girls' highschool, Busan, Dongnae

